



4면

학교폭력 예방 연구 운영 '맞손'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음 2월 25일) 제322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신규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도내 2곳 선정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 완주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11조2754억원 · 3만8132명 고용유발 효과 전북, 푸드테크 · 수소산업 선도 초격차 기술 중심지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수소산업과 연계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선정 이후 8년 만의 성과이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으로 전북의 국가산업단은 모두 8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신규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선정은 대선 지역공약에 반영된 국가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지난해 8월부터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이달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첨단산업단은 오는 2028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3,855억원을 투자해 2,076㎡(63만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첨단산업 후보지는 기존 산업단지에 위치한 12개 기업지원시설과 2단계에 도입 예정인 푸드테크 공공 임대형센터 등 향후 도입될 기업지원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번 2단계 사업을 통해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식품수요 확대와 급변하는 미래기술과 융합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식품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과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을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식품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단은 오는 2027년까지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2,562억원을 투자해 1,656㎡(50만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연접된 기존 산업의 기업 및 연구시설과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수소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ESS 안전성 평가센터, 수소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센터 등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왔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선정을 계기로 수소특화 국가첨단산업을 적극 활용해 미국·일본·독일 등 39개 국가와 치열한 경쟁 중인 대한민국 수소산업 생태계를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전북도는 이번 2개의 신규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수소산업과 연계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과 관련,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한병도 국회의원, 김수홍 국회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전대식 익산부시장,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 오택림 미래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산업과 수소산업 중심지로서의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국가첨단산업에는 식품분야 80개 기업, 수소분야 72

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538,665억원의 직접투자와 11조2,75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4,088명의 일자리 창출과 3만8,132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신규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도와

시장·군수,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 안호영 의원, 김수홍 의원, 기업관계자 등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같은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도내 기업유치의 기반이 될 국가첨단산업 조성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다 선정

전북대·전주대 등 2곳 전북도 정책 추진 시너지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발된 4개소 중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 2개교가 선정돼 전북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5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이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대학이 식품기업과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고 업체 종사자를 기업 수요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수도권 중심 4개 대학에서만 석사과정으로 운영돼 지역 식품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모부터는 계약학과를 지방 거점대학으로 확대하게 됐으며 전북대와 전주대가 선정돼 전북의 식품 기업도 푸드테크 전문교육을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되면 입학생은 등록금의 65%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대학은 연간 7,000만원의 학과운영비, 기업은 연간 6,000만원 규모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운영되는 전북대, 전주대의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도내 식품기업 재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식품 인프라를 잘 갖춰온 전북이 식품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푸드테크 메카로서 발돋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이 지역 푸드테크 산업 수요에 잘 발맞춰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환율 상승, 도내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

최근 환율과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가 보고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이자율과 환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환율 상승, 도내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기업 금융비용 경감·환율 민감도 완화 노력해야"

(autoregressive-distributed lag: ARDL)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단기효과 추정결과는 이자율과 환율은 중소기업 부실을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이자율 상승이 단기 중소기업 대출 차입의 감소를 유발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환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유동자금이 생겨 중소기업

부실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효과 추정결과에 의하면 환율은 중소기업 부실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자율은 코로나19 이후의 기간 동안 중소기업 부실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김수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신용보증금액 확대와 대출

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켰으나, 환율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기업들의 잠재적 부실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 민감도 완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무역금융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했다.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기업들도 환율과 금리충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 부채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외 정치·경제 이슈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북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2023. 4. 9.(일) 07:30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주최 | KAAP 대한육상연맹 | 군산시 | 주관 | JAIF 전라북도육상연맹 | GAAF 군산시육상연맹 | 후원 | 전라북도 | 군산시의회 | 군산시체육회 | 군산경찰서 | 군산소방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마라톤 주로 구간별 교통통제

2023. 4. 9.(일) 06:00~13:00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